

■ 막 오른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 및 제28회 제주연극제

# 뜨거운 박수갈채... 웃고 울며 관객과 호흡

### 객석 가득 관객 '활기' 좋은 출발... "계속 됐으면" 29일 예술공간 오이 이어 31일엔 극단 가람 무대

출발이 좋다. 객석은 가득 찼고, 관객들의 호응도 높았다. 때론 울고, 웃으며 연기자들과 호흡하던 관객들은 마지막엔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지난 2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에 오른 극단 세이레의 '만리향' (김원 작, 강상훈 연출) 공연 이야기다.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을 겸한 제28회 제주연극제의 시작을 알린 무대기도 했다.

올해 제주연극제엔 극단 세이레를 비롯 예술공간 오이, 극단 가람 (공연 순) 등 지역 3개 극단이 참여하고 있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극단은 오는 6~7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에 제주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날 '만리향' 공연엔 비날씨에도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공연장의 객석(총 400여석)이 거의 채워졌다. 그만큼 공연장의 열기도 달아올랐다.

제주연극협회 정민자 지회장은

"날씨가 굿어 은근히 걱정했는데 예약관객들의 '노쇼'도 많지 않았고, 웃으며 연기자들과 호흡하던 관객들은 마지막엔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우선 이날 제주연극제를 향한 도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두 달여 뒤 '대한민국연극제 제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에선 처음 공연되는 '만리향'은 실종된 지 5년이 넘는 막내를 보았다는 어머니의 말에 온 가족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막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웃음 코드를 버무려 무겁지 않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연극이다.

갈등을 겪고 상처받은 가족들이 이제서야 내보이는 진심과 아픔,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에 진출할 제주대표팀을 뽑는 예선대회를 겸하는 제28회 제주연극제의 막이 올랐다. 사진은 지난 24일 연극제 시작을 알린 극단 세이레의 '만리향' 공연 장면. 극단 세이레 제공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는 가슴 먹먹하게 하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느냐, 말도 안하고 알아주길 바랐느냐고 묻는 말들은 결국 "그것이 가족"임을 상기시켜준다.

이혜정(51)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었다"고 했다. "예전 공연에 비해 관객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이렇게 웃은 연극은 오랜만"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관객도 있었다.

한편 새봄 무대를 빛내는 제주연극인들의 열정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제주연극제의 시간은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오는 29일엔 예술공간 오이가 초연으로 선보이는 창작극 '산은 밤이면 범고래가 된다' (홍서해 작·연출)가, 31일엔 극단 가람의 '울어라! 바다야' (이상용 작·연출)가 관객과 만난다. 두 공연 모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오은지기자

## 4·3전야제 '다시, 부르는 바람' 공연 창작뮤지컬 '사월'도 첫선 주목

제주 4·3 75주년 전야제가 오는 4월 2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3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는 올해 전야제 행사엔 4·3을 소재로 한 또 하나의 창작 뮤지컬 '사월-The Great April'이 첫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문양숙 최상돈

전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하고 제주민예총이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다시, 부르는 바람'이라는 타이틀로 제주 4·3의 현재적 의미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공연이 이어진다.

전야제 1부는 제주의 사월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열망이 광주의 오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5·18세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문을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잠들지 않는 남도' 등 제주와 광주를 대표하는 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재일교포 3세로 평양 음악무용대학 전문부를 나와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인 문양숙의 가야금 연주와 제주를 대표하는 민중가수 최상돈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2부는 제주민예총이 지난해부터 기획한 창작 뮤지컬 '사월-The

Great April' 무대로 채워진다. 쇼케이스 형식으로 도민과 마주하게 될 뮤지컬은 제주민예총 김동현 이사장이 대본을 썼다. 4·3 당시 산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청춘들의 삶을 통해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갈구했던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풀어놓는다. 12곡으로 구성됐으며, 러닝타임은 60분이다. 제주와 타지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탄생한 4·3 관련 또 하나의 뮤지컬이 어떤 모습으로 도민 관객과 만날지 기대감을 키운다.

뮤지컬 '사월'의 음악감독은 그동안 제주의 곳과 신화를 소재로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쳐왔던 정원기씨가, 뮤지컬 연출은 박은영씨가 맡았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 건립 향한 디딤돌 제주예총, 최근 대구·광주 벤치마킹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가칭)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제주예술인회관)' 건립을 향한 디딤돌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지난 1월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린 제주예총은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2일과 23일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방문했다.

제주예총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개관 시기인 1990년부터 대구예총 사무처를 비롯 회원단체인 영화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

회, 연예예술인협회가 입주했다. 제주예총이 다녀온 대구예술발전소(사진)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 중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실험적인 작업물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엔 문화예술 생태계와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있다.

제주예총도 (가칭)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를 제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제별 전문가와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이를 예술로 승화해 복합예술물을 기획하고 탄생시키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제주예총은 광주예총과 MOU도 체결했다. 광주예총 사무실에는 회원단체 10곳이 모두 입주해있다. 제주예총 역시 흠여져있는 회원단체 10곳의 사무실을 한 곳으로 모을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가칭)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 건립은 지역 예술인들의 60년 숙원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

약으로 '제주예술인회관'이 언급되면서 도내 예술계의 관심이 모여졌고, 올해 초 건립추진위가 발족되면서 건립을 향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하지만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공 공연연습장 등을 조성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복합문화예술공간 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예산 확보가 과제라고 꼽힌다.

오은지기자

## 청년작가들, 봄날의 생기 담고 힘찬 도약 김만덕기념관, 청년작가전 'Spring, Spring!'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청년작가들이 제각각의 개성을 펼쳐놓는다. 김만덕기념관이 1층 전시실에 마련한 청년작가전 'Spring, Spring!'을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봄날(Spring)의 생기를 담고 용수철(Spring)과 같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청년작가들을 응원하는 전시다.

고혜령, 김남훈, 김승민, 김승주, 김원재, 박민서, 오지우, 현솔림, 황준용, 황희정 등 10명의 청년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김만덕기념관 강영진 관장은 "10인 10색의 개성 있고 스펙트럼 넓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 청춘의 생동감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시는 오는 6월 23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방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예약폭발 마감임박!**

# 날개 달린 품격여행

<p><b>BEST 봄맛이 꽃구경 패키지</b></p> <p><b>01 강릉/속초/평창/양양 강원도 투어</b> 2박3일(4인 이상 출발 확정)/2인1실 <b>510,000원(일~목 출발)</b> <b>570,000원(금~토 출발)</b></p> <p><b>02 전라도/장미축제</b> 5/26 <b>549,000원</b></p> <p><b>03 광주/함평나비 축제</b> 4/28 2박3일 <b>570,000원</b></p>	<p><b>03 베트남 다낭 3박5일</b> 4/28, 6/2, 7/27 출발 <b>1,290,000 원</b> (5성급 관광패키지)</p> <p><b>04 타이페이/기륭/베이더우 온천마을</b> 4/16, 20, 5/3, 6, 10, 20, 27 <b>899,000원</b> (5/3 : 999,000원)</p> <p><b>05 타이페이/지우펀/화롄 3박4일</b> 5/7, 14, 21, 28 6/4, 11, 18 <b>899,000원</b></p>	<p><b>06 오사카 3박4일</b> 매일 출발 <b>780,000원~</b></p> <p><b>07 필리핀 마닐라/클락 3박5일</b> 6/3 출발 패키지 <b>1,250,000원</b> 골프 <b>1,590,000원</b></p> <p><b>08 몽골 4박5일</b> 6/21, 7/8, 7/13 <b>1,590,000원</b></p>
<p><b>01 제주-홍콩 3박4일</b> 5월 4일 <b>979,000원</b></p> <p><b>02 나트랑/달랏 3박5일</b> 4월 28일 <b>1,290,000원</b></p>		

I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식의식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